

문화예술 | Latin American Culture

참살이(Sumak Kausay) 발전모델 하의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 국가 볼리비아

과달루페 팔로메케 데 타보아다¹⁾

1980년대부터 21세기 초까지 볼리비아는 1~2퍼센트의 더딘 성장을 보이는 ‘안데스 국가’로 분류되었다.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경제 순위는 끝에서 두 번째였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지지하고 실행했음에도 외화 보유하고 수준 또한 끝에서 두 번째인 7억 달러에 불과했다. 극빈층 비율은 40퍼센트에 달했고, 민영화와 자본주의 정책이 지나치게 심화되어 식수 공급마저 민영화되어 민중이 앞장서서 이른바 ‘코차밤바(Cochabamba) 물 전쟁’을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물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본부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통해 2006년 8월에 수립된 제헌의회의 바탕이 된 기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제헌의회의 업무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국민 대표자들로 구성된 제헌의회는 국가의 진정한 모습을 반영하고 보다 더 넓은 의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지금의 볼리비아다민족국(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의 새로

1) 이 글의 원제는 “Bolivia plurinacional, pluricultural y multilingüe —Bajo el modelo de desarrollo del Vivir Bien”이고, 과달루페 팔로메케 데 타보아다(Guadalupe Palomeque de Taboada)는 주한 볼리비아다민족국 대사이다. —옮긴이

운 헌법은²⁾ 제1조에서 국가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다민족 공동체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적 통합국가(Estado Unitario Social de Derecho Plurinacional Comunitario)로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주권을 지니고, 민주적이고, 상



볼리비아의 상징문양
(이미지 출처: <http://estadopluri.blogspot.kr/>)

호문화적이고, 지방분권적이고, 자치권을 보장한다. 국가통합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볼리비아는 정치적, 경제적, 법적, 문화적, 언어적 다원성과 다원주의에 기반한다.”

2009년에 새롭게 거듭난 볼리비아는 이러한 방향 속에서 정치적 다원주의(시민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다원주의(다양한 형태의 소유권 및 경제 구조, 즉 국가경제, 민간경제, 공동체적·사회적 협동조합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법률적 다원주의(보편적 정의와 원주민식 정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국가 내의 36개 원주민 민족의 언어적·문화적 다원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치적 다원주의에 입각해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기관인 정당, 시민단체, 선주민 집단 등의 설립과 이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된다. 이 단체들은 민주적인 다당제와 헌법 체제의 기본적인 원칙들 내에서, 이념적인 제한 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국민주권, 평등, 투명성, 공개성과 원칙에 입각한 배제가 그 기본적인 원칙들이다.

경제적 다원주의에 입각해 국가는 경제발전과 계획을 통합적으로 주

2) 2009년 2월 7일자로 효력이 발휘되었다.

도하며, 여기에는 볼리비아 국민의 소유인 천연자원의 관리와 산업화가 포함된다. 국가는 전략적 부문들의 모든 생산망을 관장하며 이와 동시에 기업의 자발성을 존중하고, 기업에 법적 안전을 제공하고, 공동체를 진흥시킨다. 이리하여 사회적·공동체적 경제는 경쟁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가치의 관점에서 개인의 이익을 모든 이의 참살이로 보완한다. 개인적인 문제보다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이다. 공공의 이익, 즉 모든 이의 안녕이 근본적인 목표일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 즉 선주민들(pueblos originarios)의 전통과 가치를 아우르기 때문에 공동체적 경제이다.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외국인 손에 넘어갔던 천연자원들(가스, 석유, 일부 광물, 물, 전기)의 통제권이 회복되어 원주민 운동이 전인하는 국가의 손에 넘어갔다. 또한 국유지, 광대한 사유 농지, 숲을 공동체들과 선주민-농민들이 관리하게 되었다. 현재, 국가는 국부(國富)의 최초 창출자이며, 이 부는 국민에게 바우처(bono), 연금(renta), 직접적인 사회적 혜택의 형태로 재분배된다.

볼리비아 헌법이 확립하고 있는 법적 다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 이론(Teoría de la Institución)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법률을 제정하는 유일 기관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될 때 여러 사회집단도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첫째, 법 제정 방식을 명시한다. 둘째,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맡겨 사전에 제정된 방식에 의거해 각자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하게 해야 한다. 셋째, 이 집단들은 다른 문화를 지닌 집단이어야 한다.³⁾ 그리하여 법원은 볼리비아의 여러 공동체 내에서 유효한 권위를 행사하는 원주민 정의와 결합하고 공존해야 한다.

문화적 다원주의는 볼리비아에 현존하는 문화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민족공동체국가라는 구상의 토대가 된다. 볼리비아 정부는 현존하

3) 볼리비아다민족국 헌법 제1조 “Bases del Estado”, Apuntes jurídicos, <http://jorgemachicado.blogspot.kr/2009/09/001b.html#sthash,bZlse181.dpuf>



‘공동체관광’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들
(이미지 출처: <http://www.codespa.org/>)

는 36개 민족이 고유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어떠한 민족도 자신의 문화를 다른 민족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내부문화성(intraculturalidad)이 아닌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dad)을 지지한다.⁴⁾

다종족, 다문화 국가에서 발전이라는 개념은 문명의 공존이라는 다민족적 논리로부터 시작된다. 이 논리는 생명, 사회, 자연, 경제, 국가 등을 지각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과 방법들을 절합시켜야 한다. 이는 대화, 협력, 상호보완, 호혜, 이해의 문화를 제도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제성장이란 상이한 정체성들 사이의 연대, 단합,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하고, 이와 동시에 교류 네트워크와 상호문화성 사이의 절합을 뜻한다.

우리가 상호문화성이라고 지칭하는 개념은 동일한 영토 안에서 상호보완을 이루는, 또 상호작용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여러 문화 사이의 관계이다. 이 또한 우리가 발전의 주인공이자 주도자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탈식민화된 국가 건설계획의 일부이며, 이러한 국가는 민중 부문, 선주

4) ‘내부문화성’은 하나의 문화 그룹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를, ‘상호문화성’은 서로 다른 문화 그룹 간의 차이를 주목하는 개념이다. —울긴이

민, 농촌공동체, 농촌과 도시의 노동자들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국가를 탈식민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주체에서 시작해 새로운 국가 정체성이라는 집단 의식에 이르기까지의 기나긴 과정을 거쳐 우리가 다양하며 복합적인 존재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다.”⁵⁾ 이러한 새로운 비전을 실행에 옮긴 예가 바로 볼리비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 관광’ 프로젝트로, 활동 주체인 ‘공동체’는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면서 공동체가 속한 지역의 관광지를 홍보하고 소개한다.

문화다양성은 서로 다른 문화적 표현을 존중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세상을 가능하게 해줄 통합을 이루어 선주민들 간의 상호이해와 평화공존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양성은 모든 국제질서의 본질적 가치로 인정되어야 한다. 특수성(particularidad)은 각 선주민의 생산, 지식, 관점, 역사 등의 영역에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언어적 다원주의에 있어서 볼리비아의 새로운 헌법은 무엇보다도, 각 민족과 농촌 선주민들의 언어가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고, 장려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여러 민족의 상이한 언어들의 복원, 보존, 발전, 교육,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의무를 가진다. 스페인어는 물론 아이마라, 아라오나, 바우레, 베시로, 카니차나, 카비네뇨, 카유바바, 차코보, 치만, 에세 에하, 과라니, 과라수아웨, 과라유, 이토나마, 레코, 마차후야이-카야와야, 마치네리, 마로파, 모헤노-트리니타리오, 모헤노-이그나시아노, 모레, 모세텐, 모비마, 파카와라, 푸키나, 케추아, 시리오노, 타카나, 타피에테, 토로모나, 우루치파야, 웨엔 아예크, 야미나와, 유키, 유라카레, 사무코⁶⁾ 같은 모든 민족과 농촌-선주

5) 볼리비아다민족국 국가계획(Plan Nacional del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6) aymara, araona, baure, bésiro, canichana, cavineño, cayubaba, chácobo, chimán, eseejja, guaraní, guarasuawe, guarayu, itonama, leco, machajuyai-kallawaya, machineri, maropa, mojeño-trinitario, mojeño-ignaciano, moré, mosetén, movima, pacawara, puquina, quechua, sirionó, tacana, tapiete, toromona, uruchipaya, weenhayek, yaminawa, yuki, yuracaré, zamuco.

민-원주민 언어(naciones y pueblos indígena originario campesinos)가 국가 공용어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헌법은 다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민족 중앙정부와 주 정부는 적어도 두 개의 공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스페인어여야 하고, 다른 하나는 해당 지역이나 주민의 이용 언어, 상황, 편의, 필요성, 선호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 외의 자치정부들은 그 지역의 고유 언어들을 사용해야 하며, 그 중 하나는 스페인어여야 한다.”⁷⁾

이러한 맥락에서 볼리비아의 발전 정책은 정보의 출판과 확산 체계를 강화하고, 선주민 및 도시공동체들과 관련된 고유하고 토착적인 지식들 사이의 소통을 위한 메커니즘을 확립하고자 한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산성, 창조성, 상호이해, 문화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지식의 구축이 집단적 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국가는 지식의 구축을 감독하고, 과학과 기술의 중심지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지식의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역(local)의 지혜와 지식을 회복하고 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평등을 촉진하는 사회 전략을 발전시키고 실현하려는 목적 하에서 이른바 ‘보편적 지식’(conocimientos universales)과 조우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부문에서 진전이 있었다. 국공립학교에 인터넷을 활용한 3,400개의 통신센터(telecentro)를 설치하여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문맹에서 벗어나게 했다.

앞서 언급한 요인들은 볼리비아다민족국의 새로운 발전 계획이 볼리비아의 선주민과 원주민 문화 고유의 참살이 개념에 의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자종족중심주의적(etnocéntrico) 발전을 극복할 우주중심적(cosmocéntrico) 시각을 내세우고 있다. 참살이 패러다임은 선주민 집단들과 공동체들 간에 다양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만남을 요구

7) 볼리비아다민족국 헌법 제5조.



문화다양성이 존재하는 볼리비아
(이미지 출처: <http://eju.tv>)

한다. “함께 누리는 참살이”(vivir bien entre nosotros)는 권력의 불균형이 없는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dad)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공존의 형태이다. “다른 사람이 잘 살지 않는 한, 참살이란 없다”(no se puede vivir bien si los demás viven mal). 참살이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연, 즉 어머니 대지를 존중하고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물질적 풍요의 축적과 접근에 국한된 서구식 개념인 ‘더 잘 살기’(vivir mejor) 혹은 ‘복지’와는 다르다.

참살이는 발전의 인간화 요구에 응답하고 있다. 발전의 인간화란 공공정책의 운용에서 문화다양성이 보호되어 사회가 수직적 명령의 수용자가 아니라 사회주체로서 집단적인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⁸⁾ 따라서 볼리비아의 발전 비전은 평화, 정의, 다양성, 균형, 포용,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가치가 우선시되는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데에 있다. 무한한 발전이라는 선형적 비전을 나눔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비전

8) 볼리비아다민족국 국가계획

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적 정체성, 공동체,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는 국제관계의 이러한 새로운 비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⁹⁾ 그래서 볼리비아의 외교 정책은 ‘각 민족집단의 외교’(La Diplomacia de los Pueblos)를 우선순위에 둔다. 이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우선순위의 국가 이익을 판단하고, 사회주체들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요구한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각 민족집단도 외교관계의 일익을 담당하여 인권과 삶의 원칙이 시장논리와 단순한 투자보다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과 새로운 발전모델의 적용으로 볼리비아는 현재 6.5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는 2013년 9월에 145억 7,3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이는 국내총생산의 약 52퍼센트에 해당한다. 극빈층은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감소했고, 실업률은 5.8퍼센트이며(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또 볼리비아는 이미 문맹에서 해방된 국가가 되었다.

볼리비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민주적·문화적 혁명의 과정이다. 따라서 국명만 볼리비아공화국에서 볼리비아다민족국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건국을 다시 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우석균, 문성주, 김혜지 옮김]

참고할 만한 사이트

Buen Vivir / Vivir Bien – Filosofía, políticas, estrategias y experiencias regionales andinas, Fernando Huanacuni Mamani, 2010,

- 9) 외교부, Procuraduría General del Estado, Dirección Estratégica de Reivindicación Marítima: Bolivia Soberana: Sector Relaciones Internacionales, “Plan Sectorial de Desarrollo 2013~2022”, documento de trabajo, La Paz, 2013, p. 18.

<http://www.reflectiongroup.org/stuff/vivir-bien>
 MIRADAS, NUEVO TEXTO CONSTITUCIONAL, 2010,
http://www.embajadadebolivia.com.ar/m_publicaciones/libros-pdf/09miradas_ncpe.pdf
 SEMINARIO INTERNACIONAL VIVIR BIEN, 2013,
<http://www.agruco.org/agruco/noticias/25/381-busqueda-de-alternativas-al-desarrollo>

참살이와 수막 카우사이

스페인어 원문의 ‘vivir bien’ 을 ‘참살이’ 로 번역했지만 적합한 번역어가 무엇 인지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 혹은 sumaq kawsay)라는 원주민 특유의 세계관을 스페인어로 ‘vivir bien’ 이라고 번역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함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vivir bien’ 대신 종종, 유사한 뜻을 지닌 ‘buen vivir’ 로 번역되기도 한다. 영어로는 ‘living well’ 로 번역되고 있는데, 영어 번역이나 ‘참살이’ 라는 번역은 이 특유한 원주민 세계관을 최근 회자되는 ‘웰빙’ 정도의 차원으로 축소 이해할 염려가 있다. 그렇다고 ‘vivir bien’ 을 직역해서 ‘잘 살기’ 라고 번역할 수는 없었다. 새마을운동 정도로 오해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위키피디아를 참조하면 ‘수막 카우사이’ 가 웰빙, 참살이, 물질적 삶의 수준 향상을 추구한 새마을운동과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buen vivir’ 개념은 삶에 대한 케추아인의 전통적 우주관인 ‘수막 카우사이’ 에 해당한다. 이 개념을 논하는 이들에 따르면 아이마라인들의 ‘수마 카마냐’(suma qamaña)나 과라니인들의 ‘테코 포라’(teko porã) 혹은 ‘테코 카비’(teko kavi)도 유사한 개념이다. 원래의 케추아어 의미로 ‘수막’ 은 세계(planeta)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실현을 가리킨다. 그리고 ‘카우사이’ 는 ‘삶’, 특히 품위 있는 삶, 충만한 삶을 가리킨다. 조상 대대로 전해지는 ‘수막 카우사이’ 는 인간을 파차마마(Pachamama), 즉 어머니대지의 한 요소로 본다. 따라서 원주민 전통에서 영감을 얻은 또 다른 현대적인 참살이 패러다임들과는 달리 단순한 경제성장보다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에서(‘필요한 것만 취한다’ 는 소명 의식 하에서) 자연과의 균형을 추구한다.¹⁰⁾

최근 조영현·김달관의 국내연구에 따르면 ‘수막 카우사이’ 우주관은 특히 에콰도르에서 주목을 받아 전 안데스로 퍼져나갔고,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수막 카우사이는 토착 원주민의 세계관과 삶의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라틴아메리카 고유의 사유라 할 수 있다. 수막 카우사이의 핵심은 공동체 패러다임에 근거한 것으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관계의 조화와 균형, 공생을 강조한 삶의 방식이자 패러다임이다. 그 중심에 ‘어머니이신 자연’ 파차마마에 대한 경외와 존중, 사랑이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주의나 자연을 대상화하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있는 개념이다.¹¹⁾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수막 카우사이라는 원주민 세계관이 부상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그런데 수막 카우사이를 단순히 ‘대안’ 정도로 정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인류의 현대문명과 관계있는 여러 패러다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발전’에 대한 욕망을 폐기할 것을 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안이라기보다는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수막 카우사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서구식 모델의 이식을 정당화시키고, 나아가 원주민 지배를 정당화시켰던 지난 역사와 단절하고자 하는 탈식민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옮긴이.

과달루페 팔로메케 데 타보아다 - 주한 볼리비아다민족국 대사

10) http://es.wikipedia.org/wiki/Sumak_kawsay

11) 조영현·김달관, 「에콰도르 원주민 사상과 세계관의 복원: 수막 카우사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 《중남미연구》 제31권 2호, 2012, p. 130.